

고흥군, 몽골 전역에 특산물 유통망 확대한다

60여개 매장에 ‘고흥관’ 운영 음료 기업과 공동 신제품 개발 유통망 거점 확보로 수출 탄력 내년 한-몽 합작 시제품 발표

고흥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에 대한 유통망 확대 및 유자 음료 합작개발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공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고흥군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현지 유통 및 음료 제조업체들과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고흥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유자 음료 공동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고흥군 농수산마케팅팀

김재운 팀장과 수출 전문기업 ㈜대진 장진환 대표가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몽골 대표 유통기업인 ‘미니텔그루’와 ‘노민그룹’을 차례로 방문해 고흥 특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몽골 최대 음료업체와 주류기업을 포함한 현지 가공식품·음료 제조사들과의 공동 사업 협력 방안도 폭넓게 모색했다.

먼저 몽골 내 60개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인 ‘미니텔그루’는 고흥 유자 음료를 비롯해 김부각, 조미김 등 고흥산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 매장에 ‘고흥식품 전용관’을 설치해 고흥 특산물을 상시 전시·판매하기로 협의했다.

고흥군은 이를 계기로 현지 소비자 대

상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몽골 최대 유통기업 ‘노민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고흥산 쌀의 본격적인 몽골 진출 가능성도 타진했다.

노민그룹은 고흥 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 최적화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실행력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펼쳤다.

군은 몽골 주요 음료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흥 유자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 공동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

몽골 최대 음료기업인 ‘비타핏 베버리지’는 고흥 유자의 우수한 기능성과 청정

이미지가 몽골의 건강 중심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유자 음료 공동 개발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지 대표 로컬 음료기업인 ‘문 주스’ 역시 고흥 유자의 향, 맛, 품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음료·시럽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 필요성을 언급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에 고흥군은 향후 현지 시장의 반응을 반영해 수출용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몽골 최대 주류기업인 ‘에이피유 컴퍼니’와의 협의도 주목할 만하다.

‘칭기즈칸 보드카’, ‘생구르 맥주’ 등으로 잘 알려진 ‘에이피유 컴퍼니’는 프리미엄 보드카 시장 차별화 전략의 목적으로

고흥 유자를 원료로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에이피유 컴퍼니’와 함께 공동 시제품 개발, 유자 향 추출 및 숙성 방식 테스트 등 구체적인 기술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날 중 유자 착즙액 샘플을 몽골로 발송하고 2026년 3월까지 음료 레시피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뒤 ‘한-몽 합작 음료 시제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서 고흥 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유자 음료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내일 역세권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

카페 등 상권 활성화 위해

순천시는 19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반 로컬 상권 페스티벌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세권 내 카페, 공방 운영자들과 순천역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순천중앙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150여명이 통기타연주, 축구부 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준비했으며 어린이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9개 디지털·음료 먹거리부스 △11개 아트 부스 △어린이 플리마켓 △마술쇼, 버블쇼, 풍선쇼 등 공연 및 키즈존(에어바운스)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방문객에게는 음료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축제 진행에 힘쓴다. 행사 홍보에 참여하면 친환경 돗자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재생과(061-749-5939)로 문의하거나 순천시청 누리집(www.su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걷기 행사 성료

지난 15일 광양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걷기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이 준비 체조로 몸을 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걷기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치매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160여명의 지역 주민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앞 광장에 모여 준비 체조로 몸을 뽐 뒤 본격적인 걷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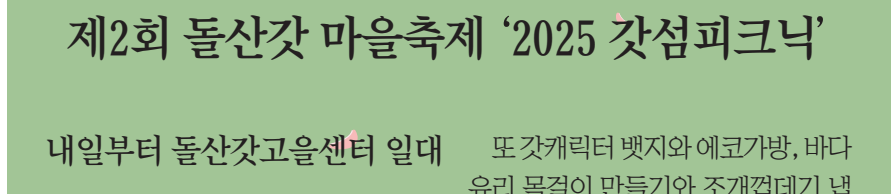
걷기 코스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출발해 성황고가고, 물빛공원, 물빛산책로, 파크골프장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4km 구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중간지점에서 치매 관련 퀴즈를 풀며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내 걷기 코스를 새롭게 알게 돼 도움이 됐다”며 “이웃과 함께 걸으며 봄바람을 느끼니 활력이 들고 몸과 마음이 모두 재충전되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밴드 앱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061-797-4894)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2회 돌산갯 마을축제 ‘2025 갯섬피크닉’

내일부터 돌산갯고을센터 일대

여수시 돌산읍은 특별한 봄맞이 축제 ‘갯섬피크닉’을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돌산갯고을센터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갯섬피크닉’은 돌산갯청년단과 돌산읍 주민 등 시민축제기획단이 만든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마을축제다.

올해는 ‘햇살도, 마음도 쉬어가!’이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소풍을 즐기고 여수 돌산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다양한 공연팀의 무대, 시민 참여형 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된다.

또 갯캐릭터 뱃지와 에코가방, 바다 유리 목걸이 만들기와 조개껍데기 냅킨 공예, 갯캐릭터 커피박 클레이, 스마트파머 갯 밋 버섯 키우기, 보물찾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돌산갯을 활용한 갯섬도시락과 어머니 먹거리장터를 통해 돌산읍 주민들의 맛있는 로컬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갯섬카페에서는 벚꽃 봄차티를 무료로 제공한다.

축제 당일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가족단위 갯김치 담그기 체험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어 SNS 채널(@갯섬.돌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양액재배 오이 첫 수확 성공

물에 녹인 영양분 작물에 공급 병해충 발생 적고 상품 뛰어나

고흥군은 지난달 정식한 오이를 양액으로 재배해 지난 14일 첫 수확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재배한 품종은 고흥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굿모닝’과 ‘기라성’으로, 초기 생육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양액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녹인 영양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토양재배에 비해 병해충 발생이 적고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고품질의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실증 재배는 토양재배보다 5~7일 빠르게 수확할 수 있었으며, 균일한 생육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실증 재배 결과에 대해 한 농가는 “양액



재배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병해가 적고 오이 색깔이 고르고 길어도 일정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고흥군도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총 96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

다. 선정위원회는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 공급의 우수성, 사업목적 부합성, 가격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개 분야, 9개 업체, 1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답례품은 △송화버섯 △새

꼬막 △빨간지 △왕새우 △한우 선물세트 △한우 채끝등심 △한우 꽃등심 △보성녹차유 △꽃차 △꽃 코디얼 세트 △녹차 막걸리 키트 △전통 방식의 된장·고추장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비롯해 △보성시니어클럽 청춘 공방의 목공예품 △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한 지역 학생 장학금 기부 등 공예품과 기부형 답례품도 포함됐다.

보성=양종수 기자